

전북 최대 규모 창고형 가구 할인매장 '눈길'

'센터가구몰류' 6일 완주 이서면에 전국 1호 전시장 오픈... 유통과정 축소 가격저렴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창고형 가구 할인매장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구유통 전문기업 '센터가구몰류'는 6일 전북혁신도시 인근 완주군 이서면 은교정동길20에 1000㎡ 규모의 창고형 가구매장을 오픈한다.

센터가구몰류는 원목 가구 생산을 중점으로 하는 자사 공장과 10여개 소파, 침대 등을 만드는 공장 유통사를 직접 연결해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전북전시장은 수도권 대규모 가구 할인매장처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했다. 유통 과정 단순화로 가격 저점을 확실히 뺀 것이 특징이다.

전북전시장은 수도권 대규모 가구 할인매장처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했다. 유통 과정 단순화로 가격 저점을 확실히 뺀 것이 특징이다.

센터가구몰류는 전국 1호 전시장(전주) 개장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수도권(경기 광주)에 2호 매장을 열 계획이다.

센터가구몰류 전북전시장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최소 3~4단계를 거치는 가구 유통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자사 유통을 통해 곧바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전시·판매한다. 거품 없는 가구 판매 유통망 혁신으로 최소한의 부담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이 회사는 열혈에 한번 팔로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컨테이너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호남에서 매주 컨테이너를 통해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곳은 센터가구몰류가 유일하다. 제품 가격도 시중의 100~50% 수준이다. 천연 가죽소파의 경우 시중에서 300만원대 판매 제품



이 90만원대, 70만원짜리 침대는 29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손에 따라 가격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드는 일반 매장보다 달리 정찰제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배송 과정도 빨라 구매 후 보통 3일 이내면 제품을 받을 수 있고, 각종 A/S를 위한 신속 처리 반을 운영 중이다.

오픈 기념으로 4월 한달 동안 매장 내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해 10% 내외의 할인 판매를 진행한

다.

센터가구몰류 관계자는 "전북전시장은 판매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인테리어나 조명 등 부대시설을 거의 설치하지 않았지만, 품질 대비 가장 저렴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 전시상품이나 스크래치 상품의 경우,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

문의는 센터가구몰류 전북전시장(070-4225-6914, 070-5029-6019)로 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봉사단, 관내 150세대에 밀반찬 전달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에서는 5일 이틀간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홀로어르신, 장애인, 부자세대, 거동불편세대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전달하는 밀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사랑의올타리 봉사단 회원 6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준비해 계절음식인 닭볶음, 파김치, 김파래무침, 바나나 등 4종 음식을 합들고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최화숙 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올해도 '사랑가득! 건강담백! 밀반찬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최락휘 안산구청장, 풍남동 고 모씨 방문 긴급지원 생계비 지급

최락휘 안산구청장은 5일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관내 저소득층을 직접 방문해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 구청장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고령의 조모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풍남동 고 모씨 가정을 방문해 긴급지원 생계비를 지급하고 동 주민센터에 기초수급자 신청안내 및 민간기관을 연계해 쌀 20kg 1포대와 라면 1상자를 지원했다.

또 우체국 공익사업에 추천해 매달 10만원씩 지원받도록 했다.

최락휘 안산구청장은 "몸이나 생활이 불편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로울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행복하기 위한 나눔이 더 필요하다"며 "안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촘촘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효자1동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저소득 어르신 점심 대접

효자1동 다사랑노인복지센터는 5일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사랑과 정성이 담긴 점심을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윤규 다사랑재가복지센터장은 "점심 한끼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조급이냐가 힘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규만 효자동장은 "매월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영양식으로 점심을 대접해 줘서 감사드리다"며 "봄에서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런 나눔의 자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완산경찰서 112 타격대, 길 잃은 지적장애 노인 신속 구조

전주완산경찰서 112 타격대 의경들이 신속한 수색활동으로 길을 잃고 배회하던 지적장애인을 2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하는 기업을 토했다.

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는 5일 오전 6시 57분 쯤 장애가 있는 A씨가 평화동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 112타격대에 출동을 요청했다.

수색에 나선 112 타격대 의경들은 평화동을 중심으로 이동 예상경로를 추적, 탐문수색을 통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집에서 3km 가량 떨어진 전주 남부시장 주변을 배회 중이던 A씨를 발견해 가족의 품에 무사히 인계했다.

에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A씨 가족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아 너무 걱정이 많이 됐는데 경찰이 아버지를 무사히 찾아줘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며 수색에 동원된 경찰과 의경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신속한 수색으로 미 귀가자를 조기 발견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군산 알리미, '청소년 영어동아리(Korea Youth Times)'

영어로 군산을 알리는 청소년 영어 동아리가 있어 화제다. 군산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군산 청소년 영어동아리(Korea Youth Times)'는 단순히 영어 공부만을 위한 동아리가 아니다.

영어동아리는 지난 2014년부터 군산의 주요 역사 문화지와 관광지 등을 영어 홍보영상(2014 Gusan Tour, 2015 Gusan Tour)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군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군산 청소년 영어동아리는 지난 2012년 창의적 영어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 10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학생 60명과 학부모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군산을 알리는 자료를 수집한 후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스마트 폰으로 영상을 촬영·편집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군산 홍보영상은 외국인들에게 군산을 알리기 안성맞춤이다.

영어동아리 학생들은 올해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영어 홍보영상 제작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역사 문화지와 관광지 현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영어로 해설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한글 해설 부분은 교육을 시작해 현장 시연을 마친 상태며, 영어해설은 오는 5월부터 준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영어동아리 회원 권가경(15·중앙중) 학생은 "외국인들에게 군산의 명소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공부는 물론 영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영어동아리가 군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숙 지도교사는 "군산을 찾는 내국·외국인에게 군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경찰청, 청사 정원서 식목일 희망심기 행사

전주지방경찰청은 5일 식목일을 맞아 청사 정원에서 김재원 전북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SNS 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 3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심기 식목일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식목행사는 직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춰 '할아버지 영근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파래나무를 심어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김재원 전북청장은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잘 자랄 수 있다"며 "전북경찰도 주변에 심어진 나무를 보며 항상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식목행사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5일 오후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식목행사는 청사 주변 화단에 대추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청사 화단에 잡초제거, 낙엽제거 등 환경정리 및 사무실 주변 도로변 청소 실시하였다.

이안구 지사장은 "청사주변 환경정리를 통하여 방문하는 고객들의 즐거움도 함께할 것이며, 깨끗하고 청정한 공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용공기업 구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경찰서, 관내 택배기사 교통안전교육

순창경찰서는 5일 지역 내 로젠택배 등 택배회사 8개소를 방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배송 시간에 쫓기다보면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 법규준수 등을 당부했다.

최규은 서장은 "낮에 전조등을 켜고 보행자가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때보다 최소 1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가 크다"며 "주간 전조등 켜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하고 또한 순창군 관내 일원 구석구석을 불전을 배송하기 위해 다니면서 불편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고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고를 당부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임실경찰서, 견인업체 교통법규위반 예방교육

봄철을 맞이하여 임실경찰서에서는 5일 임실포터스 등 견인업체를 방문 대표자 및 견인기사를 상대로 교통법규위반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견인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갖길운행, 역주행 등 무리한 운전에 따른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견인지량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이철수 교통관리계장은 견인차량 운전자들에게 신호위반, 갖길운행, 역주행 등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고지했다. /임실=진동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월 23일 등록(영민)	
	등록번호 전주거00016	(우)150-9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제노5층)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종인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96	고창지사 568-6989
010-9965-4118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7-6865	임실지사 010-9962-2725
남원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물북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4966	정읍지사 539-3767
서산지사 272-9477	군산지사 445-1157	순창지사 663-4444	장수지사 010-3862-9157
호주지사 010-9845-9835	익산지사 858-983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100-425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